



12일 (한국시간) 멕시코 사포판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1차전 한국과 체코의 경기. 황인범이 동점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흥명보호 첫판 이겼다

12일 체코전 2-1 승... 19일 멕시코와 조 1위 두고 격돌 세트피스에 선제 실점하고도 황인범·오현규 골로 역전

흥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황인범(페에노르트)과 오현규(베식타시)의 후반 연속골로 체코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흥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 (이하 한국시간)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에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후반 14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올버햄프턴)에게 먼저 실점했으나 후반 22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도움에 이은 황인범의 동점 골, 후반 35분 오현규의 역전 골로 승점 3을 챙겼다.

황인범은 오현규의 골을 돕기도 해 ‘멀티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한국은 이번 승리로 32강 토너먼트 진출의 5부 능선을 넘었다.

48개국 체제로 치러지며 조 3위까지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는 이

번 대회에서는 조별리그에서 2승을 올리면 토너먼트 진출 확률이 100%에 가까워진다.

한국은 이제 토너먼트 진출을 넘어 조 1위에도 도전해 볼 수 있는 흐름을 잡았다.

한국은 19일 오전 10시 같은 곳에서 멕시코, 25일 오전 10시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공을 상대로 조별리그 2~3차전을 이어간다.

1년간 갈고닦아온 스리백 전술을 가동한 흥명보호의 선봉엔 ‘캡틴’ 손흥민(LAFC)이 섰다.

공격 2선 좌우에는 이재성(마인츠)과 이강인이 포진했고, 중원은 황인범과 백승호(버밍엄시티)가 구성했다.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나섰고, 스리백 수비라인에는 왼쪽부터 이기혁(강원), 김민재(뮌헨), 이한범(미트윌란)이 섰다.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도쿄)가 꼈다.

전반전 한국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으나 손흥민을 앞세운 공격진의 장끝이 무더 선제골을 뽑진 못했다.

전반 12분 이강인이 한 번에 넘긴 패스를 골 지역 정면의 이재성이 받아 뒤로 내주자 손흥민이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수비수 맞고 골절됐다 이어진 상황에서는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손흥민이 문전 헤더로 마무리한 것이 골대 위로 많이 빗나갔다.

한국의 공세는 계속됐다. 손흥민이 전반 38분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기습적으로 날린 오른발 중거리 슛과 1분 뒤 페널티아크에서 날린 왼발 슈팅은 모두 골대 밖으로 향했다.

한국의 공세는 후반 들어서도 좀처럼 소독을 올리지 못했다.

후반 4분 황인범의 돌파에 이은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히자 쇄도하던 이재성이 재차 슈팅했으나 이번에도 골키퍼에게 막혔다.

후반 11분엔 골 지역 왼쪽을 파고들며 이재성의 킬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한 것

이 골키퍼를 맞고 나왔다.

슬한 득점 기회를 놓친 흥명보호는 웅크리던 체코의 세트피스 한 방에 선제 실점을 얻어맞았다.

후반 14분 오른쪽에서 블라디미르 코우팔이 길게 넘긴 스로인을 문전에서 높이 뒀던 크레이치가 머리로 받아 한국 골대를 갈랐다.

실점에도 공격의 고삐를 풀지 않던 한국은 후반 22분 황인범의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강인의 전진 로빙 패스로 공을 잡은 황인범은 골 지역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더니 한 번 짚어 수비수 하나와 골키퍼를 벗겨내고서 정교한 오른발 로빙슛을 골대 오른쪽에 집어넣었다.

흥 감독은 후반 24분 손흥민과 이태석을 빼고 ‘스트라이커’ 오현규와 엄지성(스완지시티)을 그라운드에 투입했다.

흥 감독의 교체 카드가 통했다. 후반 35분 오현규가 오른쪽에서 황인범이 넘겨준 낮은 크로스를 문전에서 넘어지면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역전 골을 뽑아냈다. 연합뉴스

도체육회, 창립 75주년 기념 유공자 시상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도체육회 고문 및 임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창립 75주년 기념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전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 진흥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고,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등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21명에게 도지사 표창 등이 수여됐다.

다음은 주요 수상자 명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강명훈(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업운영본부장), 안재영(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학교생활체육과장), 문용배(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 트레이너)

▶전문체육 진흥 부문=김재영(제주특별자치도검도회 이사), 백원재(제주특별자치도근대5종연맹 이사), 김정현(제주특별자치도보

디발링협회 사무국장), 이상운(제주특별자치도씨름협회 이사), 고정표(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이사), 이경애(제주서초등학교 체조 지도자), 김성관(제주특별자치도하키협회 사무국장)

▶생활체육 진흥 부문=양수영(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오우진(서귀포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성경관(제주특별자치도게이트볼협회 안덕분회장), 한에서(제주시불링협회 이사), 박영숙(제주특별자치도산악연맹 이사), 강철호(제주특별자치도철인3종협회 사무국장), 오진아(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 이사), 한계숙(한라대관도건강인성 교육3관 관장), 차우진((주)제주스카이랩 대표이사)

▶학교체육 진흥 부문=송명주(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 이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표창=안지은(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총무과장)

위영석기자 ysw1968@ihalla.com



뉴욕 닉스, 53년 만의 NBA 우승

뉴욕 닉스가 미국프로농구(NBA) 챔피언 결정전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꺾고 53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뉴욕은 14일 (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프리스트뱅크 센터에서 열린 NBA 챔피언 결정 5차전에서 제이런 브런슨이 45점을 몰아치는 활약을 앞세워 샌안토니오를 94-90으로 꺾었다.

브런슨은 특히 4쿼터에서만 13점

을 집중시켜 뉴욕 우승의 주인공이 되면서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시리즈를 4승1패로 마무리한 뉴욕은 1973년 우승 이후 53년 만에 우승컵을 차지했다. 1970년 우승을 포함하면 통산 세번째 우승이다.

브런슨은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았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수상 문화상 수상 (교육 부문)	수상 장한장애인대상	취임 서울제주도민회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수상 국무총리표창	취임 제상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당선 제주도의회 의원 (삼양동·봉개동)	당선 제주도의회 의원 (이도2동)
							
김계담(9회)	한태만(22회)	김상운(25회)	안창준(27회) (본회 제35대 감사)	양경택(29회) (본회 제35대 수석부회장)	부영식(31회)	박안수(37회)	김기환(55회)

위 동문의 취임, 당선,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 중 앙 고 등 학 교 총 동 창 회 장 박 흥 주 외 동 문 일 동

제 주 중 앙 고 등 학 교 총 동 창 회 여 성 동 문 회 장 홍 경 은 외 동 문 일 동

제 주 중 앙 고 등 학 교 총 동 창 회 40 대 기 회 장 고 희 전 외 동 문 일 동